필리핀 주간 경제 언론동향 (9.2.-9.9.)

2021.09.09.(목) 주필리핀대사관

1 거시 동향

□ 공공부채 동향

※ 2021년 7월말 기준 주재국 공공부채는 11.61조 페소 규모를 기록한바, 국고국(BTr)은 2022년의 경우 금년보다 14% 이상 증가한 13.41조 페소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필리핀 정부 GDP 대비 채무비율 상한선을 5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Dominguez 재무장관(DOF)은 9.6(월) 하원 세입위원회 공청회 참석 계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난관에 직면한 현황에서 채무 상한선을 설정한다면 경기 회복 관련 재정지출이 상당히 경직될 것(very inflexible)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9.6~9.7, 필리핀 국영언론 PNA 및 언론보도 종합)

- Dominguez 장관은 팬데믹 이전 과거 2019년 당시 39.6% 수준이었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에는 54.6%까지 증가했으나, 팬데믹이라는 특수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으며, 정부재정지출이 필경제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만약 정부가 지출에 소극적이었다면 현황은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고 설명

※ 최근 Dominguez 장관은 팬데믹 대응지출에 따라 2024년까지 필리핀의 GDP 대비 채무비율이 6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정부채무를 관리감독 하는 각료급 기구(cabinet-level agency) 신설 법안이 하원에서 논의 중인 것과 관련, Dominguez 장관은 현재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 및 투자조정위원회(ICC)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중이기에 신설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밝힘.

□ 통화정책

○ Diokno 필리핀 중앙은행(BSP) 총재는 9.2(목) 언론브리핑 계기, 상금 통화정책에 있어 여유가 존재(ample monetary police)하기에 경기 회복을 지원

할 수 있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조를 언급함. (9.3~9.4, 필리핀 언론보도 종합)

- 동 총재는 최근 민간산업경기 및 내수소비심리가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투자 및 민간소비를 부양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 필요한 현황임을 부연

○ 중앙은행은 팬데믹 초입부터 지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총 2.2조 페소 상당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 왔다고 설명하며 경기부양 지속 및 장기 상흔효과 방지를 위해서는 재정정책 차원의 지원 역시 중요함을 재차 언급함.

- 한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중앙은행 통화이사회 다음 일정이 9.23(목)으로 예정된 가운데 당지 금융기관 일부는 필리핀이 외부충격에 대비해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있음에 근거, 역대 최저 수준인 現 기준금리 2%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발표할 가능성을 전망

○ 통화정책 관련, 외국계 금융사들은 필리핀 중앙은행이 단기간 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중임. (9.9, Inquirer Business)

- 노무라 증권은 9.7(화) 발간 보고서에서 필리핀 중앙은행이 역대 최저 수준 기준금리(現 2%)를 최소 2022년 상반기까지는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JP 모건 역시 동일자 보고서를 통해 올해 물가상승률 평균이 BSP의 기존 예상치인 2%~4%를 상회할지라도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하면서 내수경기 회복 목적 現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

○ 9.7(화) 필리핀 통계청(PSA)은 8월 물가상승률이 7월 기준 4%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4.9%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한바, 이는 과거 2018년 12월 당시 5.1% 이래 최고 수준의 물가상승률임. (9.7, Business Mirror)

- 통계청은 7월 당시 4.9% 수준이었던 식료품·非알코올성음료 품목 물가상승폭이 8월에는 6.5% 증가한 것이 전체 물가상승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8월 기준 식료품 부문 전체 물가상승률은 6.9%를 기록한바, 직전 월인 7월 당시 상승률은 5.1%, 전년 동월 상승률은 1.7% 였던 점을 고려할 때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함.

- 특히 식료품 가운데 육류(16.4%↑), 채소(15.7%↑) 및 어류(12.4%↑)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을 보여 식료품 가격 상승을 견인

□ 고용

○ 9.7(화) 필리핀 통계청(PSA)은 6월 당시 376만 명을 기록했던 실업자 수가 최근 7월에는 307만 명으로 감소하여 7월 기준 필리핀 실업률은 6.9%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9.7, CNN Philippines)

- 수도권 메트로마닐라지역 실업률의 경우 9%를 기록하여 지난 4월 당시 14% 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필리핀 전역에 걸쳐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

- 주요산업 부문별 고용은 △서비스(57.9%), △제조업(20%) △농어업(22.1%) 順

○ 한편 경제활동 참여 인구는 6월 당시 4,884만 명에서 감소한 4,474만 명으로 집계된바, 필리핀 통계청은 지역사회격리/봉쇄조치로 이동이 제한된 현황에 기인한 것으로 관찰함.

- 또한 불완전 고용률 역시 지난 6월 당시 641만 명(14.2%) 보다 증가한 869만 명(20.9%)을 기록

※ Diokno 필 중앙은행총재는 금번 고용지표 관련, ①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임에 따라 필경기가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나, ②경제활동 참여 인구 및 불완전 고용율 증가라는 단기적 난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現 완화적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 여부에 있어 고용지표를 중요하게 참고할 것이라고 부연

2 신용 평가 기관 전망

○ 9.6(월) 일본 주요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JCR(Japan Credit Ratings)은 팬데믹하 에서도 필리핀에 대한 신용등급과 향후 전망을 기존 A-/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9.6, Philstar)

- JCR은 필리핀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견실한 내수소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에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외채 비율*에 근거하여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지닌 것으로 관찰하고, 필리핀 정부 및 은행들의 재

정건전성도 견고한 것으로 평가

* 필정부 누적 채무 총 11.61조 페소 가운데 △국내채무는 약 8.1조 페소 규모인 반면 △외채는 약 2,634억 페소 수준

○ 동 신용평가사측은 현재로서는 필리핀內 델타 변이확산에 따른 격리봉쇄 조치로 인해 경제활동을 비롯한 이동 등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필 정부가 백신 접종 가속화, 고용확대, 및 보건부문 재정지출 증대 등과 같은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긍정평가 함.

- 또한 팬데믹 가운데서도 現 두테르테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부연

3 산업 부문별 동향

□ 금융 산업

○ Diokno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는 9.7(화) 브리핑 계기,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필리핀 시중 은행들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실시된 위기관리 및 규제 개혁에 따라 견실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평가함. (9.8, 필리핀 중앙은행 공시자료 및 Business Mirror)

- 2020년 연말 기준 필리핀 시중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CAR)은 16.72%, 2021년 1분기 기준으로는 16.9%로 집계되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치 8%, 필리핀 중앙은행 기준치 10%를 상회

- 최근 8월 국제 3대 신용평가사 무디즈 역시 필리핀 시중 은행들의 위기 대응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관찰하고, 지난 18개월 동안 부실채권(NPL)이 증가한바 있지만,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020년 초 필리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규모*를 사전에 확대한 점을 긍정평가

* 2018(1,483억 페소)→2019(1,705억 페소)→2020(3,227억 페소)→2021/6월(3,480억 페소)

□ 디지털 인프라

○ 필리핀 개발연구원(PIDS)은 9.7(화) 정책브리핑에서 필리핀 디지털 인프라 현황을 진단하고, 인터넷 접근성 및 보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수익성에 기반한 민간기업의 사업 확충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한 상황으로 관찰함. (9.7, Business World)

- PIDS측은 높은 인터넷 서비스 가격 대비 제한된 접근성으로 인해 국민 다수가 광대역 인터넷 보다는 핸드폰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 중이며, 전체 가구의 18% 정도만이 자택에 유선 인터넷이 연결된 상황이라고 설명

- 또한 최소 1개 이상의 핸드폰을 보유한 가구는 75%에 그쳤으며, 25% 가량은 여전히 유선전화기를 사용 중

- 한편 24%의 가구는 개인용 PC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트북을 보유한 가구는 66% 수준이나, PC나 노트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기기 보유 유무를 넘어 컴퓨터 자체를 활용할 줄 모른다고 응답하여 상당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 동 개발연구원은 도서산간지역 및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은 지역의 경우 기대수익성 저하로 인해 민간기업이 인프라 투자를 회피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기에, 정부차원의 투자 확대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함.

- 또한 상기 정책 관련, △통신주파수 사용 및 무선인터넷 설치사업을 위해서는 필리핀 의회의 허가를 요구하는 현행 주파수통제법(Radio Control Law) 및 △외국자본의 통신사업 지분 소유권을 40%로 제한하는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 끝.